

제3장 바른 역사 이해를 위한 자료 분석

1) 1차 자료

(1) 〈판결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2),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국가기록원

(2)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장〉 〈경찰의 심문조서〉

(3) 〈신상기록카드〉

국사편찬위원회(1992-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9.

(4) 일제의 상황보고문서 『폭도에관한편책』,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2) 2차 자료

(1)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4.15

(2) 『필사본』 임명덕, 1962

(3) 『경기도지』 (상권), 경기도지편찬위원회, 1955. 11

(4) 『한국독립사』 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9.

(5) 『한국독립운동사』Ⅱ, 국사편찬위원회, 1966.12.

(6) 『3.1운동실록』 이용락, 3.1동지회, 1969.

(7) 『독립운동사』 2권, 3.1운동(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8) 『김포군지』 (1) 김포군, 1977. 2

(9) 〈덕적도 3.1독립만세운동 진리 조사〉, 권오수, 1978

(10)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상), 1986

(11) 『김포군지』(2),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3.4

(12)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지편찬위원회, 1995

(13) 『김포의 인물지』 김포문화원, 2002

제1절 1차 사료

(1) 판결문



본서에 서술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설명 대부분은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차 사료로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자료가 이 재판 판결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이 1차 사료로서 가치가 크지만 이 자료 역시 일본경찰과 검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김포지역 출신의 항일의병들이나 3.1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된 독립운동가 그리고 시위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1차 자료인 것이다.

현재 김포지역 운동계열별 독립운동가 판결문¹⁾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판결문²⁾ 확보자 명단

<항일의병> 강상봉, 이종근, 조근봉, 신관수, 김경운

<3.1운동> ▲고촌면 : 김정익(金正義), 윤재영(尹在英), 김정국(金正國), 이흥돌(李興丬), 윤주섭(尹周燮), 김남산(金南山), ▲양촌면 오라리장터 : 박충서(朴忠緒), 박승각(朴勝珏), 박승만(朴勝萬), 안성환(安聖煥), 전태순(全泰順), 오인환(吳仁煥), 정억만(鄭億萬), 정인섭(丁寅燮), 임철모(林哲模), ▲월곶면 군하리장터 : 성태영(成泰永), 백일환(白一煥), 이(李) 살늬, 조남윤(趙南潤), 최우석(崔禹錫), 정인교(鄭仁敎), 윤종근(尹鍾根), 민창식(閔昌植), 임용우(林容雨), 최복석(崔復錫), 윤영규(尹寧圭), 이병린(李炳麟), 오복영(吳福泳) ▲계양면 황허장터(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³⁾ : 심혁성, 이담, 최성욱,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2),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위 자료집에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재판판결문이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지역 항일독립운동가 중 일부만이 번역되어 있으며 또한 1차 판결문을 중심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 없는 김포출신 항일독립운동가들의 1차 판결문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내 번역하였다.

2) 본서 제4장 제1절 '김포항일독립운동가 판결문 및 번역문'에 첨부하였다.

전원순, 임성춘, 이공구, 이금산, 김창열, 배응준, 채규명, 안운필, 이태완, 전천능, 채봉혁, 유연봉, 조성칠, 전상근, 전기순, 송선옥, 채홍봉, 최청일, 전봉학, 김사삼, 채봉운, 홍여선, 박문칠, 임성일, 임창현, 채귀현, 김영권

〈독립만세운동〉 이홍식(李洪植), 장세구(張世九),

〈국내항일〉 심영택(沈永澤),

〈독립군활동〉 김성한(金聖漢),

〈국내독립운동〉 어수갑(魚秀甲), 이화영(李華永),

②재판판결문 미확보자 명단

재판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기타 자료에서 재판을 받은 기록에서 확인된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⁴⁾

〈군자금모집〉 한봉석(韓鳳錫) : 1921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부〉 이기순(李起舜) : 1928년 5월 7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학생운동〉 김낙기(金洛基) : 1926년 6.10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학생운동〉 김낙환(金洛煥) : 1926년 6.10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3.1운동〉 김도연(金度演) : 1919년 2월 동경에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2년 징역을 받았다.

(2) 수형인명부 및 집행원부

또한 1차 사료로서 〈집행원부〉라는 것이 있다.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발행한 재판요지, 죄명, 형기, 피고자 성명 등이 기록된 자료이다. 또 〈수형인명부〉라는 것이 있다. 이 자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형인명부〉와 〈집행원부〉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재판까지 받은 것을 증명해 주

3) 계양면 황허장터 만세운동 참여자 판결문은 확보하였으나 두 가지 이유에서 자료집에서는 제외시켰다. 첫째는 현재 기준으로 김포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판결문 원본 분량(118장-한글 번역본까지 합하면 약160여장)이 많아 자료집에 삽입할 수가 없었다.

※ 참고로 1919년 9월 13일 예심종결결정문, 10월 29일, 11월 19일, 12월 13일 판결문이 있다.

4) 해당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과 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 국가기록원에 수차에 걸쳐 조사의뢰하였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한봉석(韓鳳錫), 이기순(李起舜), 김낙기(金洛基), 김낙환(金洛煥), 김도연(金度演)〉.

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참여자는 구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재소자신분장〉이라는 것도 있다. 감옥소에서 교도관이 일일 재소자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이며, 집행지휘서, 심판결초본, 범죄사실, 신상표, 행장표(면회기록), 신체특징표, 건강진단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

앞으로 김포출신 항일의병 및 김포3.1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재소자신분장〉 〈경찰의 심문조서〉 등을 찾아내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각 동면사무소에 항일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자료존재 여부를 의뢰한 결과 월곶면사무소에서 〈수형인명부〉⁵⁾를 찾아낼 수 있었다. 〈수형인명부〉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범죄인 주소지 면사무소에 통보한 자료이다. 이 〈수형인명부〉의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출생년월, 신분, 직업, 주소, 출생지, 본적, 죄명, 형량, 범수, 판결연도, 확정연도, 집행재판소가 기록되어 있다.

확보된 자료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창식(閔昌植), 백일환(白日煥), 성태영(成泰永), 윤영규(尹寧圭), 윤종근(尹鍾根), 이살늬(李撒路美), 정인교(鄭仁敎), 조남윤(趙南潤), 최우석(崔禹錫), 최복석(崔復錫), 민홍기(閔弘基)

(3) 신상기록카드⁶⁾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9 에서 김포지역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신상기록카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신상기록카드〉에는 수형자의 본적, 출생지, 주소, 수형사실로서 죄명, 형명, 형기, 연도년월일, 연도재판소, 집행감옥, 출옥년월일, 수형번호, 신장, 수형자 옆면사진과 앞면 얼굴사진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의 주변 환경으로 보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병린(李炳麟)⁷⁾, 민창식(閔昌植)⁸⁾, 성태영(成泰永)⁹⁾, 김연의(金演義)¹⁰⁾, 박승각(朴勝珏)¹¹⁾, 박승만(朴勝萬)¹²⁾, 박충서(朴忠緒)¹³⁾, 백일환(白一煥)¹⁴⁾, 어수갑(魚秀甲)¹⁵⁾, 이화영(李華

5) 월곶면사무소에서 찾아낸 〈수형인 명부〉는 본서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6) 〈신상기록카드〉는 본서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7) 국사편찬위원회(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6, 116쪽.

8)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2, 434쪽.

9) 국사편찬위원회(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9, 530쪽.

永)¹⁶⁾, 정억만(鄭億萬)¹⁷⁾, 조남윤(趙南潤)¹⁸⁾, 최복석(崔復錫)¹⁹⁾

(4) 일제 경찰의 상황보고 문서

첫 번째로 김포지역의 항일의병 활동에 대해서 알수 있는 1차 사료로는 일본의 경무국에서 발행한 『폭도에 관한 편책』이 있다. 이 자료는 각 지역의 경찰이 의병관련 정보를 내부 경무국으로 보고한 문서들을 묶은 것이다.

대상 시기는 1907년에서 1910년 무렵까지 군대해산 이후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의 활동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총 89권으로 이루어진 이 자료는 1966년 총무처에서 정부기록문서인 ‘경무관계서류’를 축소 촬영할 당시 MF로 촬영되어 현재 국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폭도에 관한 편책』을 재편집하여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의병편)이 있다. 의병편 1부터 12까지 모두 12책이 간행되었다. 원자료를 그대로 간행한 것은 아니며 연도별, 지역별로 재편집하여 활자로 간행하였다.

『폭도에 관한 편책』에서 김포 항일의병 관련자료를 찾아내 이 책 후반에 <의병관련 일제문서>의 제목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게재하였으며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의병편)에서 김포 항일의병 활동관련 문서들을 찾아내 부록으로 실었다.

두 번째 김포지역의 3.1독립운동에 관련하여 1차 사료로서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육해군성문서에 보관되어 있으며 총 7권, 13,000여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9년 3.1운동부터 1923년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에 관한 보고문서들로 편철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원문과 함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 자료에서 김포 3.1독립운동과 관련한 8개의 문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문서는

10)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2, 463쪽.

11)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590쪽.

12)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593쪽.

13)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4, 165쪽.

14)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4, 283쪽.

15)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5, 134쪽.

16) 국사편찬위원회(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7, 70쪽.

17) 국사편찬위원회(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7, 457쪽.

18) 국사편찬위원회(199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25쪽.

19) 국사편찬위원회(199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8, 593쪽.

김포의 3.1독립운동을 이해하는 데 판결문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원문과 함께 번역하여 본서 제5장 제3절 '김포 3.1운동 관련 일제 육군성 문서'에 게재하였다.

①제목:전국 각지의 3월 22일 시위운동 상황

문서번호:밀 제102호 기109, 제49호/발송일:1919.3.23/발송자:조선헌병대 사령관/수신일:1919.2.23/수신자:육군대신/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1)

② 제목:전국각지의 3월 23일 시위운동 및 파병상황

문서번호:밀 제102호 기101, 제65호 조특제61호/발송일:1919.3.23/발송자:조선주차 군사령 관/수신일:1919.3.23/수신자:육군대신/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1)

③제목:전국각지의 3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시위운동 및 파병상황

문서번호:밀 제102호 기115, 제7호, 조특 제63호/발송일:1919.3.24/발송자:조선주차 군사령관/수신일:1919.3.25/수신자:육군대신/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1)

④제목:독립운동에 관한 건(제24보)

문서번호:고 제8310호/발송일:1919.3.23/수신자:조선총독 외/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7)

⑤제목:전국각지의 3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시위운동 상황

문서번호:밀 제102호 기114 제69호/발송일:1919.3.24/발송자:조선헌병대사령관/수신일:1919.3.24/수신자:육군대신/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1)

⑥제목:독립운동에 관한 건(제25보)

문서번호:고제8468호/발송일:1919.3.24/수신자:조선총독 외/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7)

⑦제목: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31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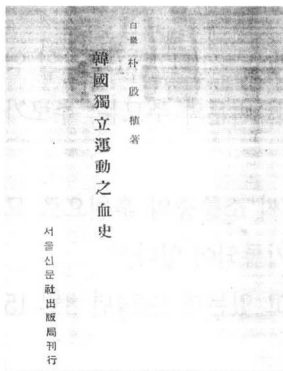
문서번호:고 제9476호/발송일:1919.3.30/수신자:조선총독 외/일본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7)

⑧제목: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문서번호:밀 제102호/발송일:1919.4.2/수신일:1919.4.2/수신자:군무국 군사과/ 일본 육군성(1921.5.3),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1)

제2절 2차 자료

(1)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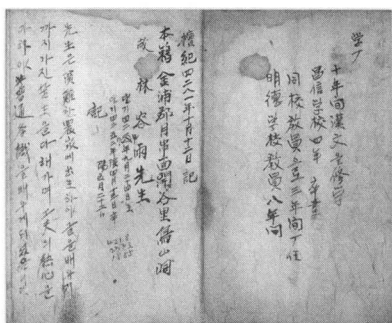


3.1독립운동에 대한 2차 자료로서는 제일 먼저 서술한 자료로 보인다. 해방 후 1946년에 박은식이 기술하였다.

김포지역 3.1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제7장 독립운동일람표 ‘경기도(3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상황)’ 부분에 도표로 소개되어 있다.

일람표는 시군별 집회횟수, 집회인원, 사망인수, 부상자수, 체포자수, 교회훼손(毀燒), 학교훼손(毀燒), 가옥훼손(毀燒)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포지역은 집회횟수 12회, 참가인원수 15,000명, 부상자수 120명, 체포자수 200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출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2) 임명덕의 ‘임용우’에 대한 <필사본> 1948.



임용우의 아들 임명덕²⁰⁾이 1948년 10월 12일부터 1977년까지 아버지 임용우와 관련 사항을 수첩에 기록해온 자료이다. 임용우의 증손자 임도연 씨에 따르면 증조모(임용우의 처)가 1962년에 사망하기 전에 할아버지 임명덕씨가 증조모의 구술을 받아적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자료는 총 15쪽으로 임용우의 약력과 약사, 비문과 축문 내용과 임용우 부인이 구술한 내용(3.1운동 당시경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부분에 임용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0년간 한문을 수학하였고, 창신학교 4년을 졸업, 창신학교 교원으로 4년간, 명덕학교 교원으로 8년간 재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중간부분에 상세하게 약력이 기록되어 있다. 1892년 한문서당에 입학하여 1900년까지 수학하였고, 동년 창신학교에 입학, 1904년 동교 졸업, 1906년 금강산 00절에서 2년간 수학, 1908년 창신학교 교원으로 취직,

20) 임명덕은 임용우의 외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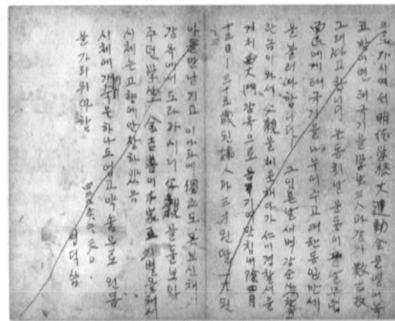
1912년 부천군 덕적면 명덕학교 7년간 복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운동참여, 1919년 3월 5일 월곶면에서 3.1운동을 봉기케 하였음, 1919년 3월 15일 덕적 면민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3.1운동을 전개, 3월 18일 외경에게 체포 인천경찰서에서 구류로 있다가 3월 하순경 서대문감옥으로 갔음, 5월 22일 악형으로 옥사.

다음으로 순국열사 임용우 선생 약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약사는 1947년 3월 1일 임용우의 제자들과 덕적도 면민들이 건립한 충절비에 있는 약사, 비문과 추모문, 추모가를 옮겨 적어 놓은 것이다.

1975년 11월 29일 문화재 김포군지부, 김포노인회, 부안임씨 소종중의 후원으로 묘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는 내용과 비문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²¹⁾

임명덕은 순국선열 유가족 생계보조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는데 1954년 8월 15일부터 1977년 3월까지 기록하고 있다.

임명덕은 어머니(임용우의 처)가 구술한 당시의 상황을 ‘3.1운동당시경과(모친께서 말씀한 대강)’ 제목으로 기록하였다. 이 구술 내용은 당시의 월곶면 만세운동을 가장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을 옮긴다.



‘3.1운동 당시 경과(모친께서 말씀한 대강)’²²⁾

서울로 만세를 부르러 간다고 집(덕적)을 떠나셨음.

서울을 단겨오시는 도중 본가(월곶면 개곡리)에 들으셨는데 그 이튿날이 월곶면

21)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김포지역에서 3.1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를 갖게된 것은 1975년 11월 29일 임용우에 대한 충절비 건립부터임을 알수 있다. 이 충절비 건립에 문화재 김포군지부와 김포노인회가 부안임씨 소종중의 후원으로 제막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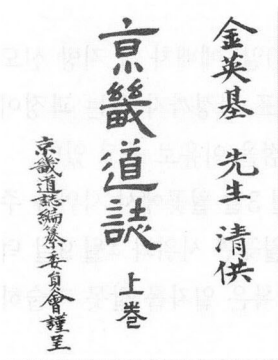
이후 김포노인회는 김포군이 1977년 2월 김포군지 편찬작업시 김포지역 3.1독립운동을 조사 발굴작업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조사과정에서 김포군 노인회가 신축된 노인회관(북변동)으로 이전할 당시 조사자료 일체를 소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임명덕이 기록한 원문을 내용 수정 없이 옮겼다.

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되어 부친(용우)께서도 동리 사람들과 함께 가셨
 서 보니 0산리 산모퉁이에 민민전부가 모여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목적지 면소)
 해산상태에 있드람이다. 곡절을 알고 보니 주재소에서 왜놈순사가 총을 쏘는 소
 리가 났기 때문에 두목, 당인춘씨가 벌벌 떨기만 하고 앞을 스지못했기 때문입니
 다. 이때 부친께서는 높흔 바위에 올라 가시어서 목숨을 액겨 가지고 대한동임을
 찾게는야 하는 강연을 하신 후 자기가 앞을서 만세를 부르며 주재소까지 가서 그
 때 면장 신용군과 주임 가등을 잡아내어 강제로 대한동입만세를 부르게 했담니
 다. 그 잇튼날 부친군 덕적면 으로 가시여서 명덕학교 대운동회를 열어놓고 밤이
 면 태극기를 학생 3인과 같이 수백장 그려다고 합니다. 운동회날 운동이 끝날 무
 렷 면민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대한동입만세를 불러따 합니다.그 잇튼날 새
 벽 강순사(한국인)란 놈이 와서 부친을 체포해다가 인천경찰서를 거쳐 서대문 감
 옥으로 옮기여 맞침내 음력 4월 13일 35세된 부인과 3세된 딸 1세된 아들만 남기
 고 이 나라에 독립도 못보신채 감옥에서 도라가시니 부친을 돌보아 주던 학생 김
 길선이 본가로 기별을 해서 시체는 고향에 안장하였음, 시체에 가족은 하나도 업
 고 약속으로 온몸을 가리위따함.

4295년(1962) 2. 28 명덕쑤.

(3) 『경기도지』(상권)²³⁾, 1955. 11



경기도지는 단기 1955년 11월 15일에 발행되었다. 도
 지는 총 3권으로 김포관련 3.1독립운동에 관련 내용은
 <상권> 제8장 항일투쟁과 민족의 쫓기, 제1절 기미독립
 운동 464쪽에 간략하게 도표로 기술되어 있다.

도표는 3.1독립운동 관련 경기도지역 피해상황이다.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시. 군 명, 집회횟수, 회
 집인원, 사망자, 구속자, 부상자 순으로 구분한 도표
 이다.

3월 1일부터 5월말 일까지의 김포군의 만세운동 집회
 수 12회, 참여인원 15,000명, 구속 120명, 부상자 2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대한 출처는 1955년에 재판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한 것임을 밝

23) 경기도지편찬위원회(1955), 『경기도지』 상권.

하고 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1946년에 초판이 서울신문사출판국에 의해 발행되었다.

(4) 『한국독립사』 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9.



이 책은 1965년 9월 25일 김승학의 편저로 발행되었다. 자료의 내용은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08쪽에 임용우, 709쪽에 임철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임용우에 대해 기술한 내용 중 김포출신을 부천사람이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으며 천도교 신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임용우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3월 3일 월곶면 군하리에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임용우의 아들 임명덕이 기

록한 <필사본>을 근거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8년 웅진군 덕적중학교 권오수 교사가 조사한 <덕적도 3.1독립만세운동진리조사>에 따르면 임용우가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에 천도교로부터 상경연락(임용우는 천도교 신자이며 직분과 직책은 알 수 없다)을 받아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3월 3일 월곶면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3월 29일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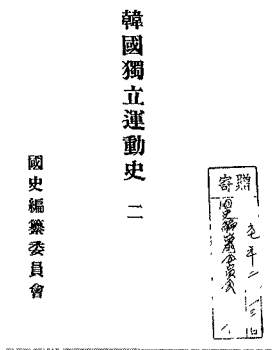
그 이유로서 당시 천도교에서는 국장배관과 교조기일(3월 10일) 예배차 각 지방 신도 간부가 상경하여 그들에게 독립거사의 내의를 밝히고 민족대표 선정까지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임용우가 3월 10일까지 서울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필자도 임용우가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고 3월 3일 월곶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면 판결문에 사건내용이 나타나야 하지만 3월 29일 월곶면 시위와 4월 9일 덕적도 만세시위 사건만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월 3일 기록은 일자를 잘못 기술하고 있다.

또한 3월 10일에 덕적면 명덕학교 운동회날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3월 10일 이 아니라 4월 9일에 운동회를 개최했다.

함께 만세운동에 참가한 자 중 이재관, 신경창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신경창이 아니라 차경창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5) 『한국독립운동사』Ⅱ, 국사편찬위원회, 1966.12.



이 책은 1966년 12월 20일에 발행되었으며 지역별로 3.1만세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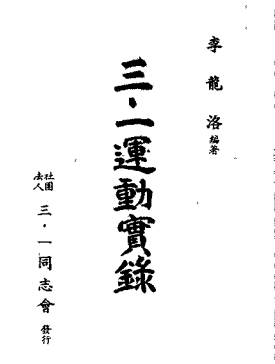
266쪽 김포지역의 운동 일람표를 살펴보면 3월 22일 군하리 지역에서 400명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주모자로 박용희(경성성서학원 여생도)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성성서학원 여생도는 이경덕(이살늬)으로 ‘박용희’는 잘못 기술하고 있다.

같은 날 통진(군하리)에서 400명이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일본 헌병 13명이 출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월 23일 양촌동²⁴⁾에서 150명 시위참여, 같은 날 양화곶에서 100명, 같은 날 양곡에서 2,000명이 시위에 참여하고 농민들이 2회에 걸쳐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이와 관련 일본헌병이 12명이 출동하였고 60명이 체포되었으며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월 24일 읍내에서 130명 시위, 3월 26일 감정리에서 23명 시위를 하였으며 김포지역에서의 만세시위 횟수는 총 12회 15,000명이 참가하고, 부상자 120명, 200명이 체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6) 『3.1운동실록』 이용락, 3.1동지회, 1969.



이 책은 1969년 이용락편, 삼일동지회에서 발행된 것을 1994년에 이용락 편저, 3.1동지회에서 재발행되었다. 437쪽에 ‘(319)김포군 월곶리 의거’ 제목으로 김포지역 만세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김포지역의 여러 곳에서 발생한 만세운동 중 유독 월곶면 지역의 것만 소개하고 있다. 제목 중 월곶면을 ‘월곶리’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소개 내용 중 특징은 경성 이화학당에 수업하던 이경덕(이살늬) 여학생이 독립선언서 수십 장을 옷속에 감추고 고향으로 내려와 성태영, 박용희, 조남윤, 윤종근, 최복석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 다른 자료에 없는 내용이다.

24) 현 김포시 양촌면을 말한다.

또한 보통학교 운동장에서 만세를 부르자 학생들이 따라 외쳤으나 일본인 교장이 제지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일경에게 체포된 군중들은 헌병대에서 일주일 후 태형으로 방면되었고, 만세 주동자 6명은 구타를 당하였는데 유독 백일환에게는 고문 취조를 하였으며 ‘무기파손죄’란 명목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미결수로 1년을 옥고 하다가 경성지방법원에서 4년 언도를 받고 공소한 복심에서 감형되어 2년 언도를 받고 복역 중 장독으로 병이 나서 보석 치료 중 경찰서 지정 의사의 완치증명이 법원에 보고 되어 3개월 만에 또 다시 입감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내용 중 백일환의 나이가 82세임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된 내용이 백일환의 구술에 의해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포지역 3.1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한 당사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증언을 기록하고 증언자를 밝힌 자료는 이 자료 뿐이다. 기술된 내용 끝부분에 수형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이름, 형기, 감옥, 주소)

백일환, 3년, 서대문감옥,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이경덕여사, 1년, 서대문감옥,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성태영, 8월, 서대문감옥,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조남구, 8월, 서대문감옥,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박용희, 8월, 서대문감옥,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최복석, 6월, 서대문감옥, 김포군 북면 조강리
윤종근, 6월, 서대문감옥,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

위 수형자 명단에 대해서 당시 월곶면 이중구 면장이 ‘상기자 명단이 범부와 같이 상 위 없음을 증명함’이라는 확인을 해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월곶면 3.1독립만세운동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13명에 이른다. 이 중 1명이 태형 90대를 받았다.

위 수형자 명단에서 빠진 독립운동가는 이병린, 민창식, 정인교, 최우석, 임용우, 윤영규, 오복영(태형90대)으로 7명이다. 또한 판결사항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다. 백일환이 징역 3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재판판결문에 따르면 1919년 7월 12일 1심에서 2년을 언도 받고 공소하여 8월 13일 기각당하였으며 10월 9일 고등법원 항소 역시 기각당하였다.(본서 제5장 제1절 ‘항일독립운동가 재판 판결문’ 참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월곶면사무소로 통보한 수형인명표에도 1919년 10월 9일 형기기간을 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1920년 4월 28일 일제의 칙령 제120호에 의해 형 변경 사면으로 2년에서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후 1927년(소화 2년) 2월 7일 칙령 제11호에 의해 대사령으로 사면통지를 받았다.(본서 '부록' 참조)

이경덕(이씨 혹은 이살눔) 형기에 대해서도 징역 1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1심에서 징역 6월을 언도받았다. 백일환과 마찬가지로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고 소화 2년 2월 7일 칙령 제11호에 의해 사면통지를 받았다.(본서 '부록' 참조)

조남구에 대해서는 조남운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형기에 대해서도 8월을 주장하나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칙령에 의해 형기를 9월 17일로 사면받았다. 박용희가 징역 8월을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박용희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월곶면 만세시위를 주도한 후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이다.(본서 '부록' 참조)

최복석과 윤종근의 형기도 8월을 기록하고 있으나 판결문에 의하면 모두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본서 '부록' 참조) 마찬가지로 칙령에 의해 최복석은 9월 9일, 윤종근은 9월 19일로 형기를 사면받았다.(본서 '부록' 참조)

최복석의 주소도 김포군 북면 조강리가 아니라 월곶면 조강리를 잘못 기술하고 있다.

(7)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상)²⁵⁾,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상)

이 자료는 1971년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내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1919년 3.1운동을 정리한 것으로 1972년에 발행되었으며 각 지역별 운동 상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위원회는 각 지방을 현지답사하고, 재판기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당시까지의 서적 등에서 잘못 기록한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발간사는 말하고 있다.

김포지역의 만세운동은 제3장 경기 서부지방, 제3절에 김포군²⁶⁾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1.월곶면, 2.양촌면, 3.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월곶면 지역의 운동 상황이 양촌면에도 기술되고 있고 고촌면 만세운동을 기타 지역으로 취급해 짜임새가 부족하다. 더욱이 만세운동에 대한 서술에서도 시간대별로 정리되지 않아 읽는 이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상).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위의 책, 153~156쪽.

월곶면 만세운동 내용 중 임용우를 박용우로, 양촌면 만세운동 설명에도 임철모를 박철복으로 전태순을 김태순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23일의 당시의 오라리장터에서의 만세시위를 현재의 명칭인 양곡리 장날로 표시하고 오라리장을 양곡시장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⁷⁾

3월 23일 오라리장터 만세운동은 대곶면 출신 임철모, 정인섭과 양촌면 누산리 출신 박충서 등이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른 시간 때에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박충서 등이 3월 22일에 만세시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²⁸⁾

3월 22일 군하리 장날 만세시위 설명에서도 박용희, 이병철 등의 협조를 얻어 시위가 전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병린을 이병철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²⁹⁾ 같은 내용 설명 안에서도 박용희 한 사람을 박용의, 박동희로 잘못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이 책의 208쪽에는 김포군 지역의 3.1운동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혼란스럽다. 김포군 지역의 운동일지에 인천지역의 운동일지 2개가 함께 기록되고 있으며 일자별로 순서가 맞지 않게 기술되어 있어 일지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대곶면 지역에 만세시위가 2회나 기술되어 있지만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월곶면 통진 읍내에서 4월 29일 만세시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3월 29일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전체를 지역별로 형식을 갖춰 기술한 최초의 자료이다.

(8) 『김포군지』(1)³⁰⁾ 김포군, 1977, 2

이 책은 김포시가 김포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자료모집과 편집 원고를 완료하여 1977년 발행한 군지이다.

3.1만세운동 내용은 제1편 김포군의 역사, 제2장 역사적 고찰, 제3절 근세사, (1)기미 독립운동, ①김포군의 3.1운동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면 편집위원들을 임명하여 조사 모집한 내용을 토대로 서적과 투고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기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위의 책, 153쪽.

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154쪽, 3월 23일이다.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154쪽.

30)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77.2.28), 『김포군지』, 김포군.

『김포군지』(1)에 (1)의 표시를 한 것은 필자의 기록이다. 김포군에서 1977년과 1993년에 김포군지를 발간하였기 때문에 이를 1977년과 1993년 군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첨가하였음을 밝힌다.

金浦郡誌

金浦郡

록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 체계성이나 전문성의 부재가 있음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만세운동과 관련된 일제시대의 기술은 박일양, 신민철, 최종호, 심두섭이 맡았다.

이 책은 김포의 3.1독립운동 전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 비중을 임철모와 임용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당 양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³¹⁾

이 자료에 의하면 (가) 3.1운동 당시 열사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75쪽) 임철모, 정인섭, 임용우, 성태영, 민홍기, 박용의(희), 조남윤, 조남선³²⁾, 당인표, 윤영규, 백일환, 이정덕, 이은선, 심복녀³³⁾(심혁성), 윤해영, 임성춘, 김도연, 박충서 총 18명이다.

여기에서 김도연³⁴⁾은 일본 동경에서 2.8독립선언 운동에 참가한 자이고 이은선, 심혁성, 윤해영, 임성춘은 지금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계양면 장기리(황허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한 자이다.³⁵⁾ 이 다섯 사람을 제외하면 총 13명이다.

판결문에 의해 김포지역(현재 김포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 중에서 이 자료에서 빠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승각, 박승만, 김정국, 김정의, 이병린, 윤종근, 윤재영, 윤주섭, 전태순, 김남산, 민창식, 최우석, 최복석, 안성환, 오인환, 정억만, 정인교, 오복영 총 18명이다.

이 자료의 특징은 각면 편집위원 조사보고에 의한 기술로 되어 있어 재판판결문이나 기타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점이 있으나 불확실한 사실도 많다.

31) 권오수(1978), 「덕적도 3.1독립만세운동 진리 조사」, 19쪽 : 『김포군지』의 김포 3.1독립만세운동 내용 중 임용우 부분은 월곡초등학교 윤형순 교장이 기술한 자료를 조사위원에 1975년에 제출한 것이다. 윤교장이 기술한 임용우에 대한 내용 전부는 임명덕(임용우 아들)의 필사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32) 조남선은 『김포군지』, 1977 자료(75쪽)에만 기록되어 있다. 월곡면 교양리 사람으로 의거망명 하였으며 4년 후 귀국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33) 심혁성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이 명단 중 이은선, 심혁성, 임성춘, 윤해영은 당시 부천군 계양면 황허장터 만세운동 참가자들이다.

34) 김포군 양동면 염창리(현 서울 강서구 염창동).

35) 이 책을 발간할 당시 1977년도에는 계양면 장기리가 김포군 지역이었다. 그러나 1919년 당시에는 계양면 장기리가 부천군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김포군과 관련이 없다. 다만 1973년에 부천군 계양면이 김포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어져 김포군 지역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1989년도에 다시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으로 재편입되어 행정구역상 황허장터 만세시위는 김포시와 관계가 없게 되었다.

또한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주도한 김도연(양동면 염창리 출신(현 강서구 염창동))을 김포사람으로 소개한 것은 1919년 당시에는 지금의 강서구와 양천구가 김포군 양서면, 양동면으로 불리는 김포지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때문에 김포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1963년 양서면과 양동면이 서울의 강서구와 양천구로 편입되어 김포군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 되었다.

임용우의 경우 부천군 덕적도 덕적국민학교(사립) 교장으로 기술하고(75쪽) 있으나 1993년도에 발행된 김포군지 1698쪽 임용우 기술부분에서는 명덕학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책 임용우 열사의 소사에는 명덕학교로 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임용우가 명덕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기술(78쪽)하고 있으나 웅진군청 홈페이지 '덕적도의 3.1 독립만세 운동' 자료에 의하면 명덕사립학교는 1907년 설립되었고, 임용우는 1912년 27세로 명덕사립학교에 교사로 부임해와 8년간 근무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자료에 없는 특징은 임용우가 1919년 2월 하순 천도교회의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동월 3일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면사무소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78쪽) 그러나 3월 29일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임용우의 아들 임명덕의 <필사본>을 근거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부분 144쪽((4)『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9)에 설명한 내용을 참고>

3월 15일 임용우가 덕적면 명덕학교 운동회를 개최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고 3월 16일 일본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78쪽) 그러나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3월 29일 김포군 월곶면에서 임용우, 최복석, 윤영규에 의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덕적면 명덕학교 운동회가 4월 9일 개최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3월 15일 체포되었는데 3월 29일에 만세시위를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자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 기술되어 있는데 박용희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용희는 3월 22일 월곶면 군하리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³⁶⁾

이 자료에는 박용희가 월곶면 고양리 출신이며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술되고 있으나(75쪽) 박용희 유공자 공적조사서에 의하면 박용희는 백일환, 성태영, 최우석, 조남윤, 이병린 등과 독립만세를 주도한 후 길림성으로 망명하여 한민회를 결성하여 활동했다.³⁷⁾

김한식, 김영선과 함께 농장을 경영하여 군자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고, 1933년 7월 일인살해 사건으로 소만교 국경으로 도피생활 중 해방되어 고향 월곶면 고양리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며 6.25전까지 민족청년단에서 활동하였다.³⁸⁾

임철모에 대한 설명 중 정인섭, 이효원, 박충서 등과 밀의하여 진행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76쪽)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오라리장터 만세시위는 각각 전개

36) 이병린의 판결문과 성태영, 백일환, 이삼농의 판결문에서 박용희는 월곶면 군하리 장날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37) 박용희 유공자 공적조사서.

38) 박용희, 위의 자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충서가 이끈 시위대는 오후 2시에 전개되었고, 임철모, 정인섭이 주도한 시위는 오후 4시경이었다. 어떤 자료나 재판 판결문에서도 만세시위를 함께 모의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된 내용을 이후 기록자가 하나의 계획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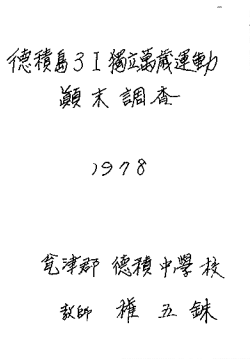
대곶면 출신 만세시위 주도한 사람 가운데 이효원이 기술되고 있지만 내용출처가 불분명하다.(77쪽) 임철모, 정인섭 판결문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모의를 같이하고 참여하였으나 체포되지 않고 이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해들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 77쪽에 임철모가 오라리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설명에서 3월 23일을 3월 1일로 잘못 기술되고 있다.

박충서 열사의 기록에도 오기가 발견되고 있다. 오라리장을 현 명칭인 김포양곡시장으로 표현하고 있다.(76쪽, 80쪽)

다른 자료에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박충서 열사가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전 주재소 전화선을 절단하는 책임을 맡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는 내용이다.(80쪽) 주재소에서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본서로 전화연결이 되어 본서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라리장터 만세운동은 치밀하게 준비된 거사였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김포군에서 김포지역의 항일의병 활동이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하겠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는 ‘군지’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지역의 항일의병 활동이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형식과 내용이 너무도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 〈덕적도 3.1독립만세운동 진리 조사〉, 권오수, 1978



이 자료는 1978년 웅진군 덕적중학교 권오수 교사가 임용우가 주도한 덕적도 진리 사립명덕학교 운동회시 전개된 3.1만세운동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총 40쪽의 분량으로 3.1운동 당시 덕적지방의 사회적 배경, 3.1운동의 전개과정, 주동자의 체포와 옥고, 주동인물의 약전, 요약 및 결론, 제언,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내용의 특징은 당시 만세운동의 당사자 및 참여자들의 증언에 의해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저자 스스로 밝

하고 있지만 증언자들의 나이가 고령으로 구체적인 기억에 한계가 있어 일부 같은 내용에 대해 증언자마다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우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기술되어 있어 김포 월곶면 만세운동의 실마리를 이해하는 데 그 가치가 크다.

자료 내용 중 김포와 임용우와 관련된 사항만 살펴보면 김포 월곶면의 임용우가 섬지방인 덕적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1912년 송명현³⁹⁾이 명덕학교 교사로 임용우를 초빙하여 일어와 산수를 가르쳤으며 송명현이 교감, 임용우가 교사로 교무조직을 이루었으나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은 임용우가 하였다고 기술되고 있다.

임용우가 4월 초순 이재관⁴⁰⁾을 찾아와 유고문을 돌린 것을 위로하면서 덕적에서 만세를 부를 것을 계획하고 섬에는 5일장이 서지를 앞으므로 군중을 집합시킬 수 있는 명목으로 춘계 운동회를 개최기로 하였다고 한다,

운동회가 끝나 일인 주재 경찰관이 자리를 파하자 임용우가 연설, 이재관의 논고문 낭독, 만세삼창이 이어졌으며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임용우는 천도교인이었지만 덕적에서 포교를 한 적은 없으며 천도교 신자의 지위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권오수 교사는 『김포군지』의 2월 하순 천도교의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3.1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고 하고 3월 3일 김포 월곶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나 3월 3일의 월곶만세는 3월 29일을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임용우가 덕적 만세 후 낮에는 산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제자인 이정옥⁴¹⁾의 집에 3일 밤을 자고 4일째 되던 저녁에 집으로 갔다가 체포되었다. 한국인 일본 순사에게 맞아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철사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

임용우가 감옥에서 갖은 고문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자 조선총독부 검사국에서 주소지인 덕적으로 신병인도 연락이 와 김길선(명덕학교 교사)과 제자인 이정옥이 서대문형무소로 신병을 인도받아 등에 업고 문을 나오자 운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정옥은 임용우를 업고 2일 만에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김포 고향으로 운구하였다고 한다.

39) 권오수(1978), 「덕적도 3.1독리 | 만세운동 진리조사」, 3쪽.

송명현이 사립명덕학교를 인수하여 자신의 집 사랑채를 학교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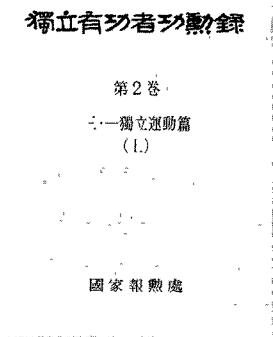
1914년 명덕학교 교감이었다. 송명현이 임용우와 어떤관계로 명덕학교 교사로 초빙하였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40) 이재관은 명덕학교 속성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임한 임용우의 제자이다. 3.1운동시 이재관의 숙부 이동음이 귀향하는 길에 선언서 1부를 갖고와 이재관에게 주면서 보고 소각하라고 하였으나 이재관은 동지 몇 명과 논고문(격문) 50여매를 써서 각 동네 벽에 붙였다.

41) 이정옥은 당시 19살로 명덕학교를 졸업한 임용우의 제자이며 임용우가 체포되었을 때 주재소 뒤로 가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뒷산으로 도망쳤더니 주재소에서 총소리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1947년 명덕학교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덕적면민의 이름으로 순국비가 건립되었으며,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임용우 묘소에 1975년 11월 29일 김포문화재지부, 노인회, 부안 임씨 소종중의 공동명의로 순국비가 건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0)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상)⁴²⁾, 1986



국가보훈처에서 1984년 생존 애국지사 및 전문사학교 수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공훈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6년 발행되었다.

이 저작은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은 사람이나 항일운동이 인정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백서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공훈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서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저작의 ‘제2편 3.1독립운동 참여자 명단’과 ‘제3편 지역별 3.1독립운동 공훈록’에 3.1운동관련 김포출신들이 기술되어 있다.

69~316쪽 ‘제2편 3.1독립운동 참여자 명단’에는 성명, 당시연령, 출신지 또는 활동지, 거증문헌, 비고(공훈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김포출신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도연)⁴³⁾, 김정희, 당인표, 민창식, (박용돈), 박승각, 박승만, (박용의), 박용희, (박용우), (박철복), 박충서, 백일환, 성태영, 안성환, (오기빈), 오인환, 이병린, (이병철), 이흥돌, 이흥식, 임철모, 임용우, 전대순, (장세구)⁴⁴⁾, 정억만, 정인교, 정인섭, 조남윤, 최복석, 최우석, 이 중에서 (박용돈), (오기빈)은 판결문에 의하면 3월 22일 월곶면 만세시위 중 박용희가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서기 박용돈, 임원상, 오기빈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한 면사무소 직원이다.⁴⁵⁾

따라서 공훈록 기록은 만세운동 참여자로 오해한 것 같다. 또 (박용의)⁴⁶⁾는 월곶면 3

42) 국가보훈처(1986),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상).

43) 명단 중 김도연은 김포군 양동면(현 강서구 염창동) 출신으로 보훈처에서는 김포출신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1919년에는 김포, 통진, 양천의 3개 군을 병합하여 김포군이였다. 구 양천군은 양동면과 양서면으로 조정되었다. 1963년 1월 1일부로 김포군의 양동면, 양서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보훈처에서는 당시의 행정명칭을 따라 출신을 규정하였다.

44) 현 서울 강서구 가양동

4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327~331쪽.

월 22일 만세시위를 주도한 박용희를 오기한 것이다. (박용우)도 박용희를 (이병철)은 이병린을 잘못 기술한 것이다.

(박철복)⁴⁷⁾은 대곡면 출신으로 양촌면 오라리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한 임철모를 오기한 것이다.

(장세구)⁴⁸⁾는 김포출신으로서 당시 학생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한 자이다.

(김도연)은 김포출신⁴⁹⁾으로 동경에서 2.8독립선언에 참여한 학생이다.

‘제3편 3.1독립운동 공훈록’(지역별)에는 공훈대상자들의 개인 활동내역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는 3.1 만세운동을 참여하고 주도한 사실과 이로 인해 투옥당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⁵⁰⁾ 여기에 기록된 김포출신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도연), 박승각, 박승만, 박충서, 성태영, 백일환, 윤종근, (이은선), 정인섭, 임철모, 임용우이다. 여기서 (김도연)은 동경에서 2.8독립선언 참여자이고, (이은선)은 지금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계양면(당시에는 부천군 계양면) 황허장터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제의 칼에 순직한 자이다.⁵¹⁾

그밖에 공훈록 9권(1991)에는 김정익, 신관수, 이병린, 공훈록 10권(1993)에는 김남산, 윤영규, 윤재영, 윤주섭, 이살늬, 이종근, 전태순, 공훈록 12권(1996)에는 강상봉, 김경운, 공훈록 13권(1996)에는 심영택, 조근봉, 조남윤, 공훈록 14권(2000)에는 민창식, 공훈록 15권에는 이흥식, 장세구, 정인교가 기술되어 있다.

3.1독립운동에 대한 김포군 지역의 기술은 매우 짧게 일자별로 기술되어 있다.⁵²⁾ 그러나 이 책에서도 박충서가 3월 22일⁵³⁾에 만세시위를 한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으며 ‘제3편 지역별 3.1독립운동 공훈록’에는 박승각, 박충서, 정인섭, 임철모 기술에서 오라리장을 현재의 양곡리 장날 혹은 양곡장터로 기술되고 있다.

백일환, 성태영에 대한 기술에서도 이병린을 이병철로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

46) 국가보훈처(1986),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상), 157쪽.

47) 국가보훈처(1986), 위의 책, 163쪽.

48) 국가보훈처(1986), 위의 책, 260쪽.

장세구는 당시 1919년 지명으로 김포군 양서면 가양리 사람이다. 현지명으로 강서구 가양동을 말한다. 김포군 양서면과 양동면이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어 김포군과 관계없는 지역이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당시의 기준으로 김포사람으로 기술하였다.

49) 현 서울 강서구 염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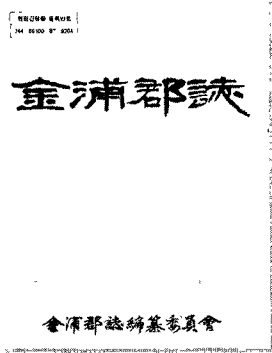
50) 국가보훈처(1986), 위의 책, 260쪽, 319~624쪽.

51)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은선을 김포출신으로 표기한다. 이유는 1973년 7월 1일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과 계양면이 김포군에 이관되었다. 1989년 12월 31일 계양면이 인천시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 책을 발간할 당시 1984년에는 계양면이 김포군이었던 때문에 김포출신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52) 국가보훈처(1986), 위의 책, 346~347쪽.

53) 22일이 아니라 3월 23일이다.

(11) 『김포군지』(2)⁵⁴⁾, 1993, 4



1977년에 발행한 김포군지의 내용을 1990년 12월부터 보강해 1993년 4월에 재발행한 것이다.

김포군지 편찬위원으로는 건국대 이범직 교수, 명지대 신천식 교수, 인천교대 정동화 교수, 경기도청 강대욱 연구관이 참여했다.

1993년도에 발행한 김포군지는 1977년도에 발간한 군지보다 상대적으로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었다.

김포지역의 3.1운동과 농민운동, 청소년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서도

오기와 잘못 기록한 내용이 많다.

대곶면 출신 임철모 주도하에 양촌면 오라리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된 사실을 통진 지역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정인섭, 이효원, 박충서 등으로 만세운동을 협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⁵⁵⁾ 1977년도에 발행한 김포군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판결문에 의하면 임철모와 정인섭은 대곶면 출신으로 당시 오라리장터 오후 4시에 시위를 전개하였고 양촌면 누산리 출신이며 경성제1고보 학생신분이었던 박충서와 박승각, 박승만, 정억만, 안성환, 전태순, 오인환이 같은 장소인 오라리장터에서 오후 2시에 만세시위를 각각 전개하였다.

이 자료에서도 3월 22일 월곶면 군하리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한 사람 가운데 이병린을 이병철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⁵⁶⁾

월곶면 군하리 출신이며 이화학당 신학생이었던 이살늬(이경덕)이 3.1운동 후에 고향에 독립선언서를 갖고 와서 성태영, 박용희, 조남윤, 윤종근, 최부(우)석 등과 모의하여 4월 5일 군하리 통진군청(월곶면사무소) 앞에서 시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3월 22일에는 성태영, 백일환, 이살늬가 군하리 장날에 3월 29일에는 임용우, 최복석, 민창식, 정인교, 윤종근이 갈산리 부근에서 주도하였다. 따

54)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3), 『김포군지』, 김포군.

『김포군지』(1)에 (1)의 표시를 한 것은 필자의 기록이다. 김포군에서 1977년과 1993년에 김포군지를 발간하였기 때문에 이를 1977년과 1993년 군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첨가하였음을 밝힌다.

55)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3), 위의 책, 238쪽.

56)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3), 위의 책, 239쪽.

57)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3), 위의 책, 239쪽.

라서 4월 5일 만세시위 했다는 기술은 이 자료에서만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일자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공훈록』(제2편 3.1독립운동 참여자 명단)에 기재된 김포출신의 인물을 기술하고 있으나⁵⁸⁾ 빠진 명단이 많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국, 김정의, 당인표, 민창식, (박용돈), 박용희, (박용우), 안성환, 오인환, 윤종근, 윤주섭, 이병린, (이병철), 전태순, 정억만, 정인교, 조남윤, 최우석.

이 중 괄호는 관계없는 이름이다. 애초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잘못 기록된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위 자료에서 인용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 상)은 1986년 12월 25일자로 발행한 자료이다. 여기에 소개된 김포출신 3.1운동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정의, 당인표, 민창식, 박승각, 박승만, (박용우), (박용의), 박용희, (박철복), 박충서, 백일환, 성태영, 안성환, (오기빈), 오인환, 이병린, (이병철), 이흥돌, 임용우, 임철모, 전태순, 정억만, 정인교, 정인섭, 조남윤, 최복석, 최우석, 총 27명이다. 19명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중에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 상)에서도 잘못기록한 부분이 있다. 박용의(박용희), 박철복(임철모), 이병철(이병린)이다. 괄호가 실제 인물이다.

‘3.1운동 공훈자’⁵⁹⁾라 하여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훈자가 아니라 ‘3.1독립운동 참여자’ 명단이다. 기술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국, 김정의, 당인표, 민창식, (박용교), (박용우), 박용희, 안성환, 오인환, 윤재영, 윤종근, 윤주섭, 이병린, (이병철), 전태순, 정억만, 정인교, 조남윤, 최우석 총 19명이다. 그러나 내용 중 (박용교)는 박용돈을 잘못 오기되었으며 박용돈은 3월 22일 월곶면 군하리에서 만세시위 중 박용희가 당시 월곶면사무소 서기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만세를 불렀던 면서기이다. (박용우)는 박용희를, (이병철)은 이병린을 오기한 것이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권 (3.1운동편, 상)에 기록된 참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정의, 당인표, 민창식, 박승각, 박승만, (박용우), (박용의), 박용희, (박철복), 박충서, 백일환, 성태영, 안성환, (오기빈), 오인환, 이병린, (이병철), 이흥돌, 임용우, 임철모, 전태순, 정억만, 정인교, 정인섭, 조남윤, 최복석, 최우석, 총 27명이다. <괄호안은 잘못 기록된 명단>

이 책 후반부 제2장 인물 ‘제2절 김포의 인물’ 1632쪽 박충서 소개 내용 중 3월 23일 시위 주동자 6명을 체포하자 해산하였던 시위군중들이 다시 연행된 주재소를 포위하고

58)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3), 위의 책, 240쪽.

59)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3), 위의 책, 244쪽.

이들을 탈환하기 위해 습격을 감행하였으며 일경은 이러한 습격에 발포를 하며 맞았으나 시위대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2)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⁶⁰⁾, 경기도, 1995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이 책은 1995년 12월 경기도가 발행한 자료로서 한말 의병운동부터 8.15해방까지 경기도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김포지역 만세운동 관련내용은 제3장 3.1운동의 전개, 제19절 김포군에 기술⁶¹⁾되었으며 정진각(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이 집필하였다. 자료의 내용 기술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자료에 비해 꼼꼼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자료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464쪽 내용 중 ‘월곶면 군하리 출신이며 이화학당 신학생이었던 이살늬(이경덕)이 3.1운동 후에 고향에 독립선언서를 갖고 와서 성태영, 박용희, 조남윤, 윤종근, 최부(우)석 등과 모의하여 4월 5일 군하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1993년도에 발간한 김포군지 239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⁶²⁾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3월 22일에는 성태영, 백일환, 이살늬가 군하리 장날에⁶³⁾ 3월 29일에는 임용우, 최복석, 민창식, 정인교, 윤종근이 갈산리 부근에서 주도하였다.⁶⁴⁾ 따라서 4월 5일 만세시위했다는 기술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다. 3월 22일 만세시위 후 일경에게 체포된 사람이 4월 달에 다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5일 기록은 오기로 보인다.

465쪽, 대곶면 지역은 만세시위가 기록상으로는 없다. 그럼에도 김포군 만세운동을 기술할 때 ‘대곶면’을 독립적으로 구별한 것은 잘못이다. 단지 대곶면 출신 정인섭 임철모가 주동이 되어 양촌면 오라리장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므로 대곶면으로 구별한 것으로 보인다.

466쪽, 이 책의 내용 중 다른 자료에 없는 부분이 양동면(현 강서구, 양천구)과 군내면(현

60)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5), 경기도사연구총서1,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61) 김포군지편찬위원회(1995), 위의 책, 463~467쪽.

62) 자료에는 발간년도가 1992년으로 표기.

『김포군지』의 내용은 이용락의 『3.1운동실록』 437쪽을 인용하고 있다.

6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328쪽.

6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위의 책, 325~326쪽.

김포시 감정동)의 만세시위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동면에서는 3월 23일 양화리에서 24일에는 읍내에서 100여 명의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군내면(김포 1·2·3동)에서는 3월 26일 주민 수십 명이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13) 『김포의 인물지』⁶⁵⁾, 김포문화원, 2002

2002년 김포문화원(원장 조한승)에서 발행한 자료이다. (김포인물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이하준(가톨릭대학교 교수), 간행위원:이진호(여주대학 교수), 이승후(여주대학 교수), 보조연구원:홍성식(명지대학교 강사), 변진환(명지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으로는 각 동·면별로 위촉된 김포향토사료 조사위원들이다.(편집위원:강신도, 경인호, 권윤택, 김기송, 김남원, 김동혁, 민택기, 박양원, 박진양, 심예섭, 양성환, 이섭, 이영권, 이은식, 이익재, 이하성, 이하청, 이

효순, 정규홍, 조경호, 조길준, 조시현, 조한웅)

『김포군지』,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두산동아세계대백과사전』 등을 중심으로 김포관련 인물들을 추적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⁶⁶⁾

이 책에는 항일독립운동가 및 3.1운동 관련 김포출신 인물들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권말에 부록으로 3.1운동 관련 김포 인물 판결문을 실었다. 이 내용은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⁶⁷⁾에서 발췌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⁶⁸⁾ 『김포인물지』에 소개된 김포출신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덕규), 김남산, (김도연), 김정국, 박승각, 박충서, 백일환, 성태영, (신관수), (유명규), 윤재영, 윤종근, 윤주섭, 이병린, 이살눔, 이은선, (이종근), 임용우, 임철모, 전태순, 정인섭, (한봉석), 김정희, 이기순.

『김포의 인물지』에 기록된 김포출신 명단 중 괄호의 명단 (권덕규)⁶⁹⁾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교도소에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 나왔다.⁷⁰⁾

65) 김포문화원(2002), 『김포의 인물지』 김포문화원.

66)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9쪽.

67) 3.1운동 관련 김포인물 판결문을 독립운동사 제2권에서 발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는 판결문이 없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 재판기록)에 판결문이 게재된 것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68)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10쪽.

69)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59쪽.

70) 김승학(1965), 『한국독립사』, 통일사, 83쪽.

(김도연)⁷¹⁾은 동경에서 2.8독립선언 참여자이고, (신관수)⁷²⁾는 양촌면 홍신리 출신으로 정용대 의병장 휘하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한 자이다.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유명규)⁷³⁾는 통진출신⁷⁴⁾으로 진위대 하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강화진위 분견대 부교지훈윤과 함께 봉기한 자로서 통진에서 일군에게 체포되었는데 계속 항거하자 총살당하였다.

(이종근)⁷⁵⁾은 통진군 양릉면⁷⁶⁾ 매가동 출신으로 정용대 의병에서 활동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소위 강도사건으로 1908년 10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유형 5년을 선고받았다.

(한봉석)⁷⁷⁾은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에 가담, 독립투쟁을 전개한자이다. 1921년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에 잠입 활동하다 일경에게 체포되어 안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기순)⁷⁸⁾은 1925년 독립운동단체들이 정의부로 확대 조직되자 계속 재무책으로 일하였으며, 1928년에는 동 의용군으로 군자금 조달 활동 중 유하현에서 일 영사관경찰에 체포되어 1928년 5월 7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71) 김포문화원(2002), 『김포의 인물지』, 106쪽.

72)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176쪽.

73)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246쪽.

74) 여기서의 통진은 현재의 통진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를 말한다.

75)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294쪽.

76) 지금의 양촌면 양곡리 일대를 말한다.

77)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421쪽.

78) 김포문화원(2002), 위의 책, 514쪽.

이들은 1945년 8월 15일(음력 7월 26일)에 이르러서야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후 이들은 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 중 일부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음력 7월 26일)에 이르러서야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후 이들은 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 중 일부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1. 김두봉(1900~1980) 2. 김두봉(1900~1980) 3. 김두봉(1900~1980) 4. 김두봉(1900~1980) 5. 김두봉(1900~1980) 6. 김두봉(1900~1980) 7. 김두봉(1900~1980) 8. 김두봉(1900~1980) 9. 김두봉(1900~1980) 10. 김두봉(1900~1980) 11. 김두봉(1900~1980) 12. 김두봉(1900~1980)